

이제는 그의 작품과 건축적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가 13년간 몸 담았던 조선총독부시절에 관계하였던 건축물로는, 조선총독부청사가 있었고 퇴임하기 직전에 관여하였던 경성제국대학 본관(현 문예진흥원/동승동 소재)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조선총독부 영선계라는 조직 안에서 설계에 참여 또는 감독협조 정도였을 것이고 박길룡의 작품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독립 후, 사무실 자영시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자료를 보면 총독부에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시대의 건축적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 아직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朝鮮と建築”을 보면, 조선총독부 재직시절인데도 주택과 소규모 건물들이 더러는 그의 이름으로, 어떤 때는 설계자가 박길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국의 건축가—박길룡(2)

Korean Architects - Park Gil-Ryong

작품과 건축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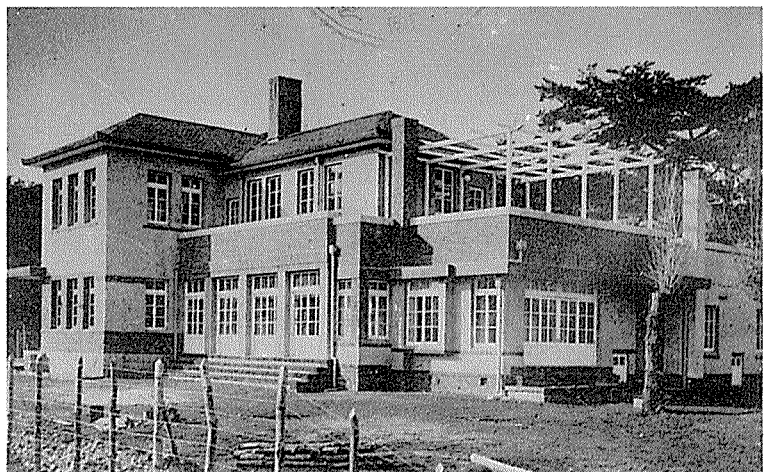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성북동 김연수씨댁(서울 성북동/
1929년 준공)

대표적인 것이 성북동 김연수씨댁이다. 설계는 1929년 6월 이전에 끝난 듯하고, 공사는 1929년 6월 25일에 기공, 상량은 같은해 9월 17일에, 낙성은 11월 30일에 본 것으로 되어 있다. 평면을 살펴보면, 서쪽에 현관이 위치하고 그 좌우에 書生室(우리의 문간방에 해당-書生은 남의 집의 일을 도와 주며 기거하는 젊은 사람)과 客室(손님방)이 있으며, 현관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그리고 계단실 옆에 식당-배선실-주방이 배치되어 있어 안쪽의 內房(안방-일제시대의 도면에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노인실, 가정부방, 욕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사에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1층의 침실들은 모두 온돌로 되어 있다. 그리고 2층에는 서재와 예비실, 3개의 침실을 마련하고, 침실부분에서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배려해 놓았다. 1층의 지붕 윗부분을 베란다로 이용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기초를 콘크리트로하고 지상구조부를 주로 벽돌조, 부분적으로 목조를 사용했다. 외관구성은 근세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변색벽돌과 채색벽, 갈색 스크레치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건축주 김연수씨는 경성방직의 창업주인 김성수의 동생으로 그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었다. 성북동은 당시로써는 서울의 외곽으로 성북리였으며, 교통은 조금 불편하였지만, 사대문안의 기존 주거지역과 비교하여 계곡과 송림이 만들어내는 호젓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부유층의 새로운 주택의 입지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으로 부상하는 곳이었다.



김연수씨 댁

조선생명보험회사(서울 안국동/1930년 10월 31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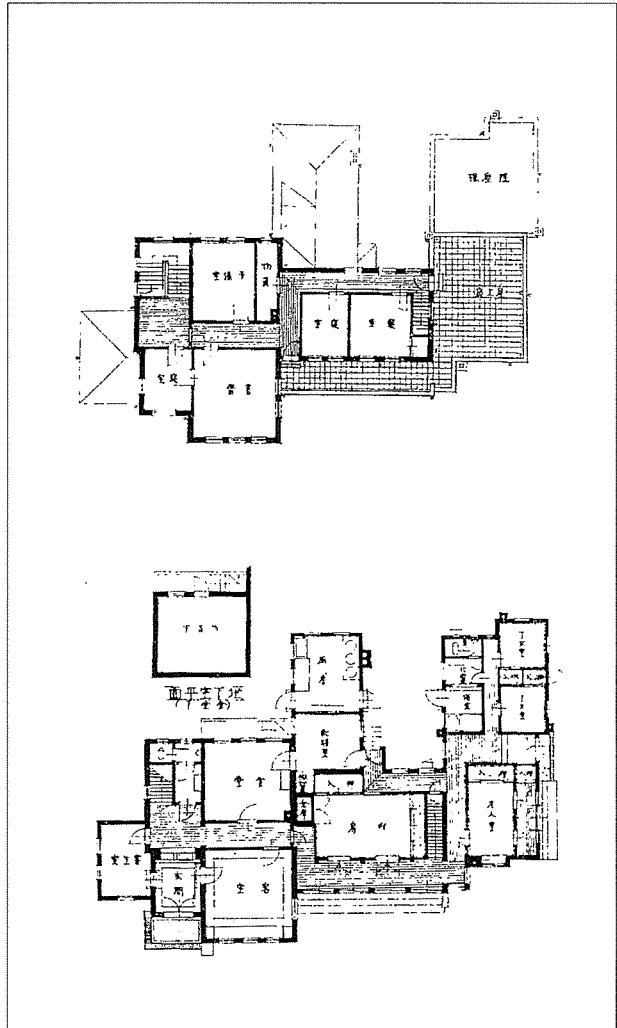
안국동 전차정거장 앞에 세워졌던 이 건물은 1960년대에 김수근의 공간건축연구소에서 한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가와는 꽤 인연이 깊은 건축물이다. 벽돌조 2층건물로 뒤쪽에 목조 1층의 부속건물을 가지고 있다. 정면의 가운데에 주현관이 있고, 이와 연결되는 복도를 대칭축으로 좌우에 사무실, 회의실, 지부실, 지배인실, 응접실, 금고, 화장실 등이 있으며, 계단은 안쪽에 있다. 뒷편의 단층 부속건물은 식당과 주방, 그밖의 부속시설들이 있다. 본건물의 2층에는 사장실, 사무실, 회의실이 역시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외관은 화강석과 인조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타일로 마감하여, 건물의 무게를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장적으로도 수평선을 강조하여 그 무게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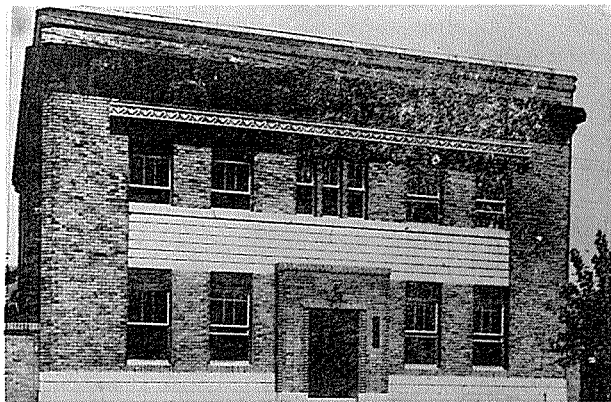
동일은행 남대문지점(서울 남대문로/1931년 9월 준공)

남대문로의 북쪽에 면하고 있는 이 건물은 벽돌조 3층 건물로, 1층에는 영업장과 지배인실, 금고실이 있으며, 안쪽에 식당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층과 3층에는 사무실이 있으며, 계단참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소변소가 간이로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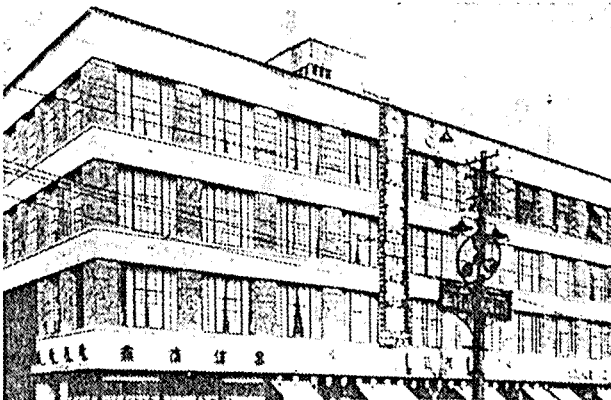
이 건물도 역시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의장적으로는 조선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창주변의 수직선을 강조하여 3층부터 1층까지 개구부의 주변을 하나의 테로 묶어서 띠를 두르고, 각층의 바닥면 언저리에서 만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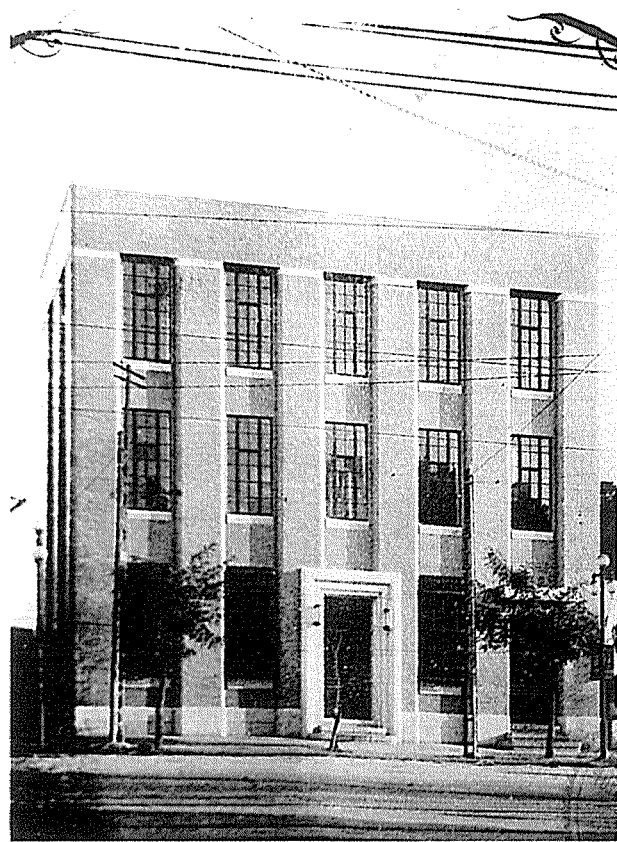
김연수씨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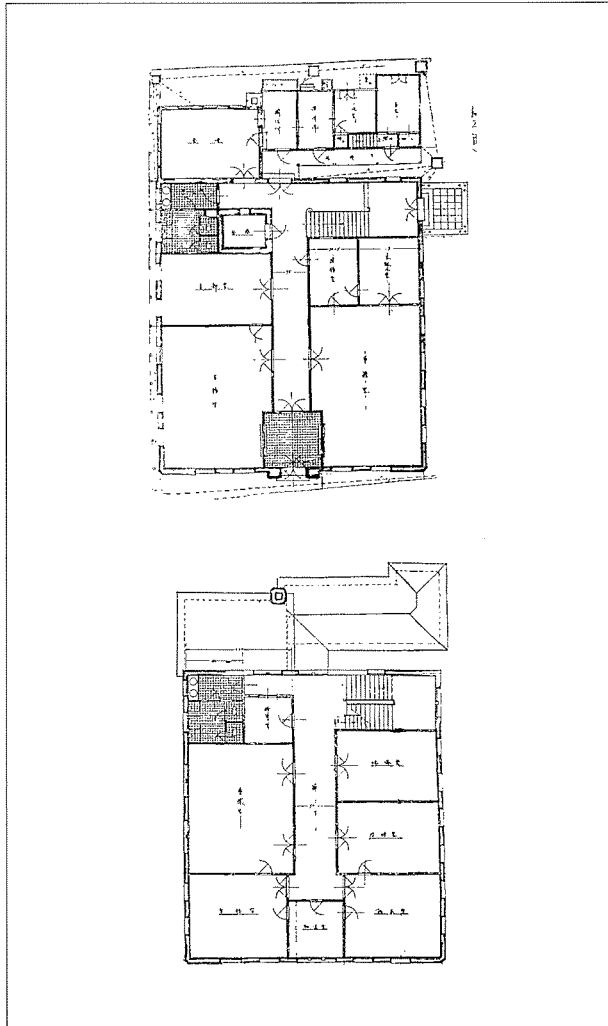
조선생명보험회사



종로백화점 「동아」 1931년 건립당시 모습



동일은행 남대문 지점



조선생명보험회사 평면도

를 하고 있다. 지금도 리노베이션하여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로백화점 '동아' (서울 종로/1931년 준공)

종각 네거리의 동북쪽 모퉁이에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바로 인접한 동쪽 대지에 종로백화점 '동아'가 있었다.

1931년의 이야기이다. 이때의 화신백화점 건물은 박길룡과는 관계가 없는 기존의 건물이었으며, 동쪽 대지에 세워진 종로백화점 '동아'가 박길룡의 작품이다. 이 백화점은 민규식 소유의 건물이었으며 2,3,4층은 임대 백화점이고 1층은 민규식의 연고자들이 시계점,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비슷한 성격의 상업건축물이 종로에 나란히 붙어 있으면서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1932년 동아는 화신에 넘어가게 되고, 네거리 모퉁이의 원래 화신은 '화신 서관'으로, 원래 동아였던 것은 '화신 동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1931년, 박길룡이 백화점 '동아'로 설계한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외벽은 벽돌쌓기로 커튼월 기법을 도입하였다. 지금 보아도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외부 표현을 하였고 계단, 화장실, 서비스 기능을 모두 건물의 안쪽에 배치하여, 외관에 어울리게 명확한 실내구성 및 기능분화를 하고 있다. 또 8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모던한 디자인의 건물도 1935년 1월 화신 서관에 화재가 나면서 불이 옮겨 붙어 3,4층을 태운 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5층으로 증축되고, 9월에 옆의 건물

사진 1. 왼편건물이 화신서관, 오른편이 화신동관(구 '동아'). 1935년 화재후 동관은 5층으로 증축되면서 외관이 많이 바뀌었고, 동관 서관을 연결하는 브리지가 생겼다. 서관은 박길룡작품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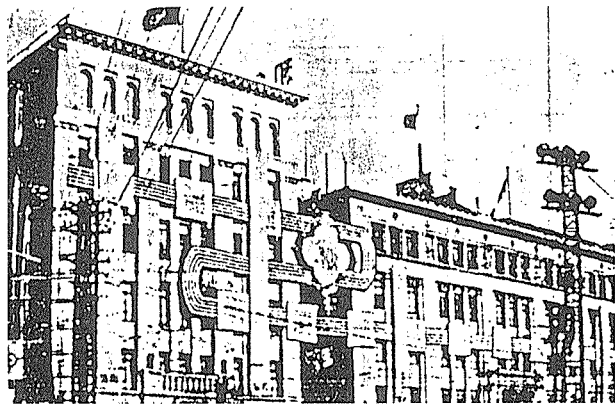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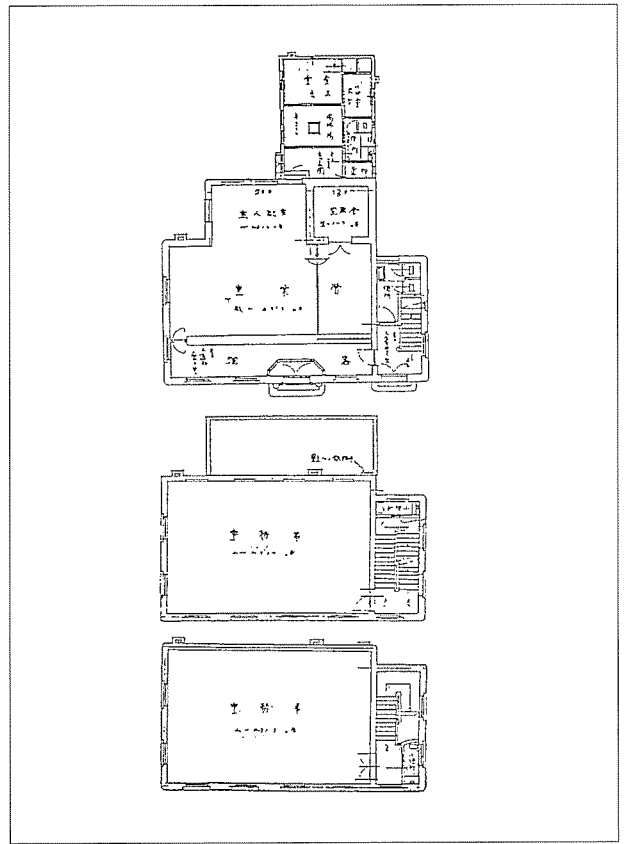


사진 1



1960년대 종로빌딩(구 화신동관)의 모습



동일빌딩 남대문지점 평면도

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개보수 작업도 박길룡의 손을 거친 것이었다.

김명진씨택(서울 관훈동/1931년 4월 기공, 12월 준공)

박길룡의 독립후 처음으로 “설계감독:박길룡건축사무소”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박길룡의 모든 작품, 특히 주택에서 공통된 사항이지만,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엿볼 수 있다. 1층의 현관 근처를 공적인 부분으로 하고 그 안쪽에 식당, 주방, 욕실, 하녀실을 복도로 연결시켜 놓고 있다. 2층은 서재와 침실로만 이루어져 있고, 1층의 지붕에 해당되는 외부공간을 배란다로 계획하였다.

외부마감은 완전히 벽돌치장쌓기로 하였으며, 창 주변과 파라페트는 하얀 수평띠를 둘러 지루함을 없애고 경쾌함을 주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외벽의 심한 요철을 볼 수가 있는데, 내부의 구성이 복도로 이어져 있어 동선의 연결에 따라 필요한 방을 배치하다 보니 외부에서 심한 요철이 생겨난 것이다.

한청빌딩(서울 종로/1934년-1935년)

1층에는 점포를 임대하고, 2~4층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계단을 가운데의 안쪽에 배치하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외벽은 벽돌쌓기로 커튼월 기법을 상용하였다. 그리고 내부의 간막이 벽은 목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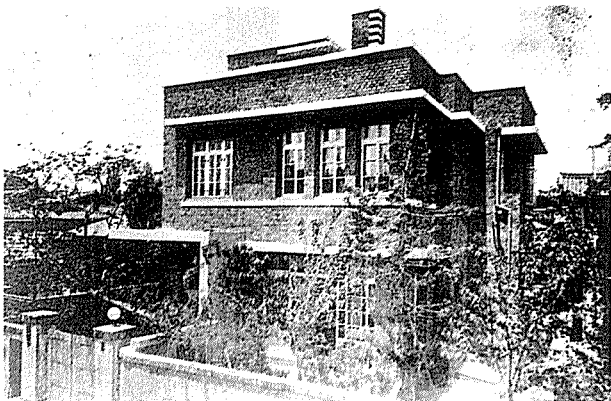
외부마감은 1층만 화강석을 붙였고 나머지는 타일로 하였다. 그리고 외관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모더니즘에

기초한 장식없는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를 3등분하여 창을 댄으로써 리듬감을 부여하여 외관부터 경쾌함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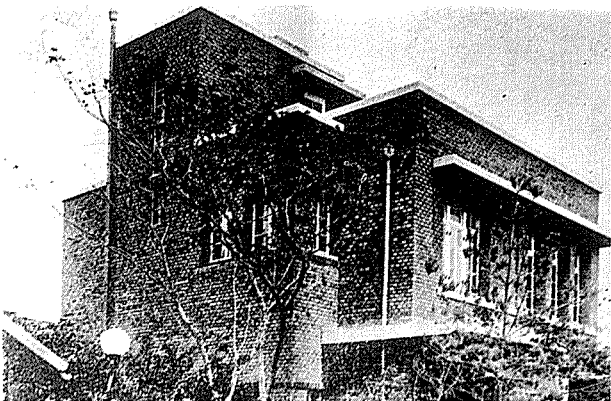
화신백화점(서울 종로/1935-1937/종로 2가)

박길룡의 대표작이다.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로서 이 정도의 작품을 소화해 내어 당당히 종로네거리에 세웠다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식민지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울적해 있을 때 저으기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기슴 뿌듯하게 한다. 고층빌딩(7층~옥상층까지 포함)으로서는 최초의 한국인 설계자에 의한 것으로서 종로 네거리의 가각지대를 이용하여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새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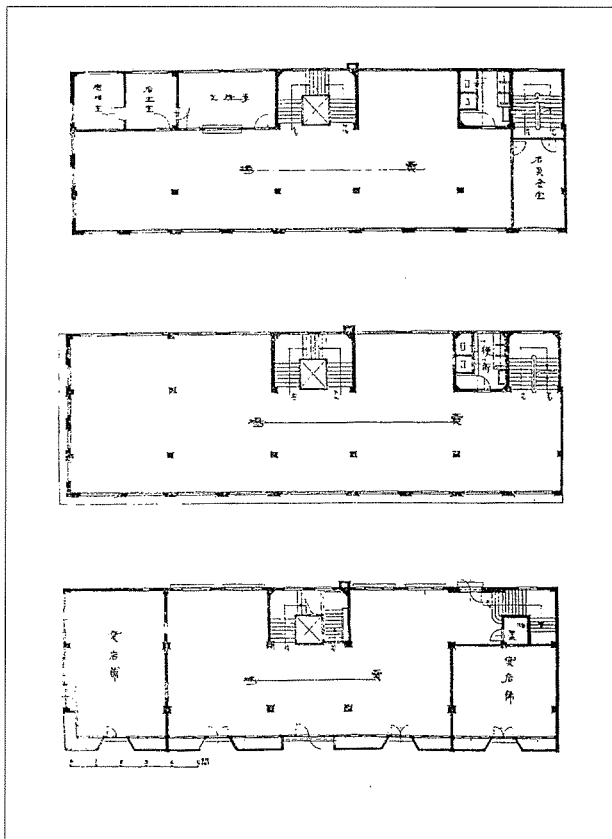
앞의 한청빌딩에서도 보여 주었던듯이 외벽의 경우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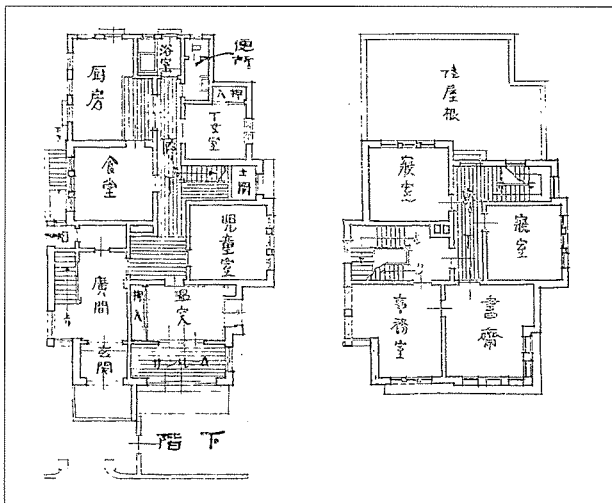
김명진씨택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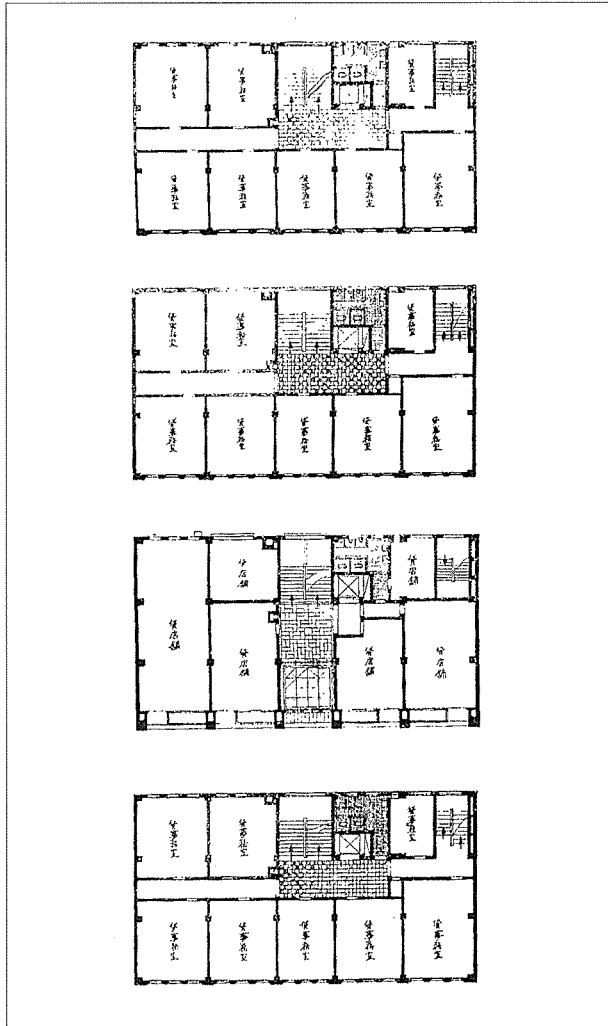
김명진씨택 외관



종로백화점 「동아」 평면도



김명진씨택 평면도



한정빌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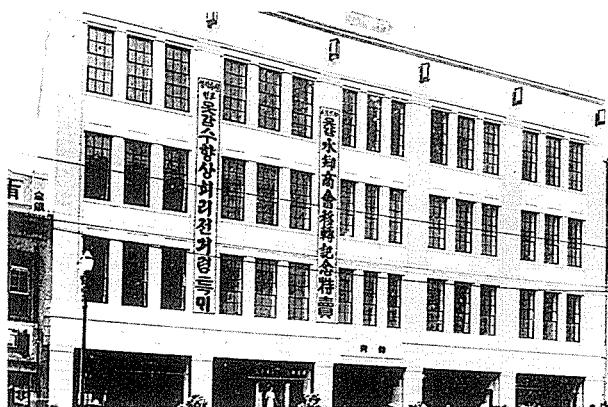
사이를 3등분하여 리듬감을 줌으로써 화강석, 대리석, 타일의 외부마감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덜어 주고 있으며, 건축잡지의 건축개요에서 작가가 밝혔듯이 근세부흥식, 즉 르네상스 양식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여 중후함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다.

1층부터 6층까지는 매장이며, 특히 6층에는 공연장(극장)이 마련되어 있고, 옥상층에는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어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광복 이후 철거될 때까지 계속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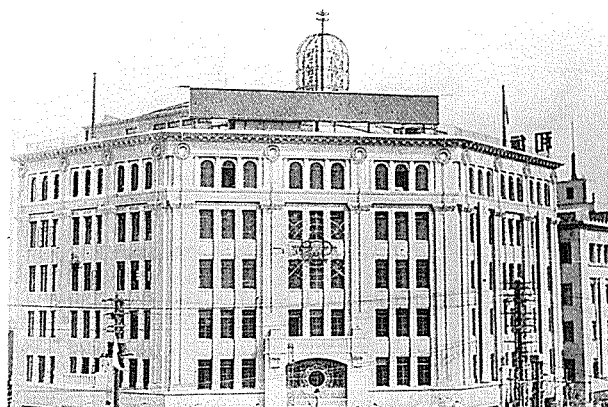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특징

기능의 명확한 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디자인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자질구레한 기교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선이 굵고 무게를 느끼게 하는 수법을 채용하였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양식주의를 벗어나서 기능주의, 합리주의 사조가 일어나며 국제주의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또 그러한 건물이 나타나기도 하던 시기였지만, 그는 명확한 기능을 따르기는 하면서도 마무리 짓기에서는 경박스러움 보다는 중후함을 택하였다. 그는 생전에 라이트를 좋아하였다 한다. 위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선이 굵고 중후함, 특히 화신백화점의 외관은 시카고파의 여러가지 작품과 유사성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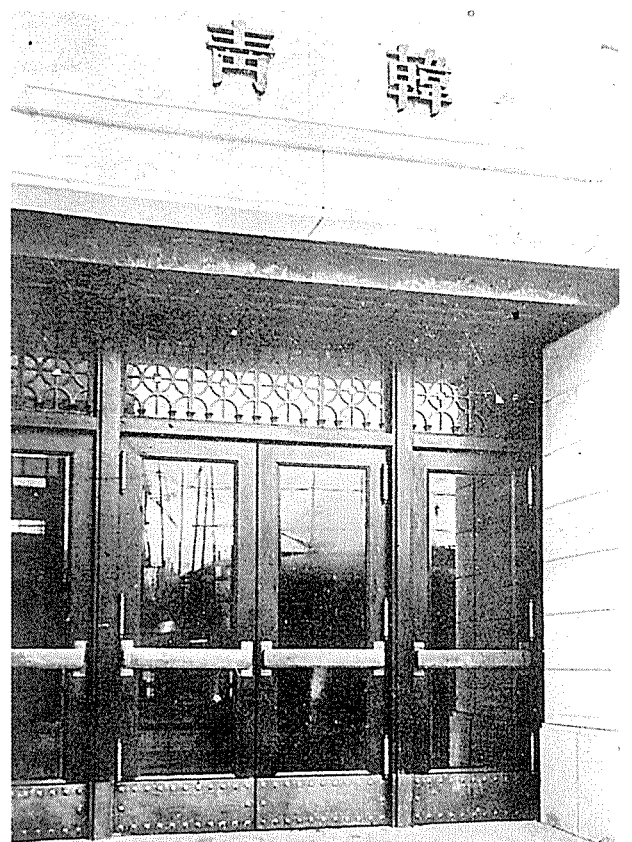
그리고 그의 글에서도 나타나는 바이지만, 주택설계에서는 침실에 온돌을 채용하여 전통생활양식을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 시대의 건축계는 일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있었으며, 수적으로도 많았기 때문에 온돌의 장점을 비롯하여 온돌의 설치법에 대해서 일본인



한정빌딩 외관



박길룡의 대표작 화신백화점



한정빌딩 현관 부분

들에게 이해시키는 글들을 많이 투고하였다.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그의 생각

이 연재의 첫 머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박길룡은 상당히 많은 지면에 건축에 관한 글을 실었다. 그 글들의 대부분은 한옥에 대한 것이었는데, 밀집도시화되어 가는 당시의 서울에서 주거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풀어나갈까에 대한 과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전통생활 방식과 동떨어지지 않는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일본인 독자를 위하여 온도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조선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면서 도시형 주거로 변해가는 한옥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한옥의 방을 설명하면서 안방을 內房, 건넌방을 越房, 아랫방을 下房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글은 거의가 이렇게 세세하고도 각론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어쩌면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을 우리말 건축용어정리라든가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지만, 건축론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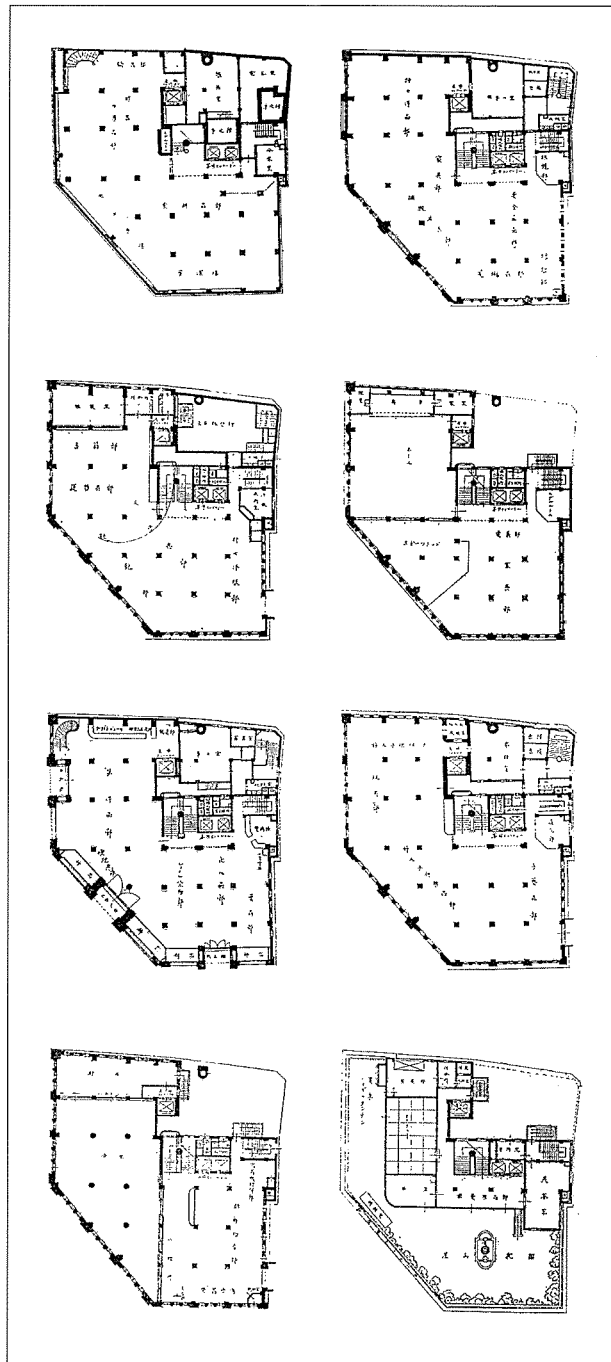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는, 西洋化를 근대화의 본보기로 삼고 오랜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잡았던 일본과 중국에서 최초로 탄생했던 자국민 건축가들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타츠노 킨고(辰野金吾)와 이토추타(伊東忠太), 그리고 중국의 리양치첵(梁思成)이 바로 그들이다.

타츠노 킨고는 1879년 동경대학 전신인 工部大學校 造家學科를 졸업(제1회)하고 4년간 영국유학 및 유럽여행을 하였다. 1883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건축학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일본은행본점이며, 그 축소판이라할 수 있는 건물이 현재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본점 구관인데 그의 설계로 1910년에 준공되었다. 또 이토추타는 1892년 工部大學校 造家學科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美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고, 건축의 본질에 대하여 몰두하면서, 여러가지 논문을 발표하다가 1902년에는 북경에서 출발하여 3년만 동안 雲崗, 西安, 인도, 터키, 그리스, 이집트, 예루살렘, 소아시아를 순방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법륜사에 대한 연구와 여러가지 학설을 내어놓았다.

중국의 리양치첵(梁思成)은 칭화대학을 거쳐 1924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유학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아메리카 보자르의 제3세대 영웅 폴 크레를 만나 크게 영향을 받았고, 훗날 귀국하여 1928년 동북대학건축과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최초 건축가의 등장은 너무나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아쉬운 것 투성이 일 뿐이다. 나라 잃은 젊은 건축가의 등장과 사라짐, 인접국가의 초기 건축가들과 비교해보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화신백화점 평면도

가 있다. 우선 시야가 좁은 것이다. 4년제 학부를 졸업하고 발로 걸으며 해외에서, 그것도 역사적 건축유물을 약 4년간씩 건문을 넓히고 온 그들에 대해서 한정된 지식과 체험으로 참으로 잘도 버티고 고군분투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히 숙연해진다.

이 여름, 우리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고 있다. 한 세기전 우리들 선배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들이 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출발이 엄청나게 늦은 셈이다.